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관한 연구*

Husbands and Wives Communication Styles in Marital Interaction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박사과정 이 정 순
이화여자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부 교 수 박 성 연
Dept. of Home Management
Ewha Womans University
Doctoral Course : Lee, Jung Soon
Dept. of Home Management
Ewha Womans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Park, Seong Yeon

〈목 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의 고찰
Ⅲ. 연구방법 및 절차
Ⅳ. 연구결과
Ⅴ. 논의 및 결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communication styles in married couples.

The subjects are a total of 301 couples living in Seoul.

The main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styles of marital communication are consisted of 5 factors which are reproachful attitude, rational attitude, concessive attitude, unilateral attitude, and unconcerned attitude.

2. The styles of marital communication are classified into 5 styles in husbands which are arbitrary style, obeident style, authoritarian style, unconcerned style, and respectful style, and in wives, 4 styles which are arbitrary style, obeident style, unconcerned style, and respectful style.

3. The husbands' arbitrary style and wives' unconcerned style are differently

* 본 논문은 박사논문의 일부임.

perceived by husbands and wives.

4. The relations of marital communication styles are classified into 3 relations which are supplementary relation, antagonistic relation, and equal relation.

5. In the case of equal relation and supplementary relation in comparison with antagonistic relation, husbands satisfy more with their wives' communication. And in the case of antagonistic relation in comparison with supplementary relation, husbands and wives want more to change of spouses' communication.

5. The relations of marital communication styles are affected in husbans by education, in wives by age, and family life cycle.

Ⅰ. 서 론

전통적인 한국가족에서는 혈연 중심의 부자관계가 가족내 인간관계의 중심이 되었으나, 현대가족에서는 가족구성원의 행복을 추구하는 핵가족을 지향하므로, 부부관계는 가장 가까우면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해야하는 관계가 되었다. 따라서 부부간 커뮤니케이션은 부부관계의 질을 형성하는데 핵심이 되어 정서적 지지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가족구성원간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기초가 되므로, 가족생활에서 모든 상황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며 역동적인 힘이 된다.

부부간 커뮤니케이션은 언어형태 및 비언어적인 것과 연결되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주제나 문제 내용이 변화할 뿐 일정하게 유형화된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존재하여 (Satir, 1972;Larsen, 1982), 언어의 선택이나 길이, 부부 각자가 말을 주도하는 비율, 침묵하는 시간 등에 있어서 안정성과 규칙성을 보인다(Thomas, 1977).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보다는 간접적으로 나타내며 침묵에 가치를 두어서 소위 이심전심으로 감정과 의사를 주고 받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부부관계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우리나라 부부 특유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되어진다.

그러나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커뮤니케이션이 부부간 상호작용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고려할 때 현대의 우리나라 부부가 어떤 유형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는가를 경험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며 의의있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증적 조사를 통하여 한국가족에서의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 및 상호작용하는 남편과 부인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이 한쌍의 부부간에 어떤 관계로 구성되는지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남편과 부인은 자신의 커뮤니케이션 유형 및 배우자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파악하고 예측하며, 부부간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점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가족 연구자들이나 상담자들이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려는 적극적인 시도나 노력을 구체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Ⅱ. 선행연구의 고찰

1.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

커뮤니케이션 유형이란 상호관계가 확립되고 지속·연결되어 커뮤니케이션 행동이 비슷한 일련의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부부는 결혼생활을 통하여 상호작용함으로써 독특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생겨나고 유형화되어,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부부간 상호작용의 본질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도 단순히 무엇(what)을 커뮤니케이션 하느냐, 즉 내용에 관한 것뿐 아니라 어떻게(how) 커뮤니케이션하는가 하는 방식을 강조하게 되어서, 가족간의 커뮤니케이션에 관심이 있는 학자들에 의하여 부부간 커뮤니케

이션 유형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Satir, 1972;Hawkins et al, 1977, 1980;Vincent, 1979; Edwards, 1980;Wish & D'Andrade, 1980).

커뮤니케이션 유형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다.

Satir(1972)는 언어로 표현하는 말, 몸의 자세 그리고 내면적인 감정을 토대로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회유형, 비난형, 계산형, 산만형, 설득형 등 다섯 가지로 발전시켰다. 언어와 감정이라는 면에서 Satir와 유사한 Hawkins 등(1977, 1980)은 언어화와 감정표출 정도에 따라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차단형, 통제형, 분석형, 그리고 친숙형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커뮤니케이션을 타인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결정해 주는 최대의 요소라고 강조한 Vincent (1979)는 가족규칙을 기준으로 완고한 형, 융통성이 있는 형, 공포를 느끼는 형, 개방적인 형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Wish와 D'Andrade(1980)은 TV시리즈물인 「American Family」를 인용 분석한 결과 다섯 가지 양극적인 차원, 즉 질문형 대 정보형, 선도형 대 반응형, 비동조형 대 동조형, 지배형 대 순종형, 사려형 대 비사려형을 제시하였다. 커뮤니케이션함으로써 생기는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부부간에 이해와 가정평형상태에 관심을 갖고 Edwards(1980)는 지각의 유사성과 이해를 기준으로 조화상태, 부조화상태, 갈등상태, 비갈등상태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국내에서 그동안 단편적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은 대부분 최근의 것이다.

송성자(1985)는 부부간의 역기능적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촛점을 두어 한국가족구조·성격·가치관 등 사회심리학적 요인을 기준으로 권위지향형, 불성실지향형, 지배지향형, 회생지향형, 소심지향형으로 유형화하였다. 이러한 유형들 중에서 회생지향형은 권위지향형, 불성실지향형, 지배지향형과 관련이 있었으며, 불성실지향형과 소심지향형도 지배지향형과 관련이 있어서, 남편과 부인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은 Adams(1980)의 주장과 같이 역동적인 관계가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Hawkins 등(1977, 1980)의 분류에 입각하여 원효종(1984)은 친숙형, 통제형, 분석형, 차단형 등으로, 이기숙(1988)은 가족주기에 따라 개방적인가 폐쇄적인가를 구분하였다. 언어를 통한 행동적 측면을 강조한 이창숙·유영주(1988)는 실제조사를 통하여 Satir(1972), Hawkins 등(1977), 송성자(1985)의 이론과 분류를 근거로 권위형, 친숙형, 회생형, 분석형, 타인지향형, 성실형 등으로 분류하였다.

국내외 연구에서 분류된 유형들은 두 가지 즉 긍정적 측면의 기능적인 유형과 부정적 측면의 역기능적인 유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국내 연구 중 외국의 이론에 기초한 연구(원효종, 1984;이기숙, 1988)를 동양적 유교사상이 행동양식을 지배하여 침묵이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한국 부부에 적용시키는 것과 정상가족이 아닌 문제가족에서의 연구(송성자, 1985)를 일반부부에게 확대시켜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내외 연구들이 부부를 연구대상으로 했을지라도 송성자(1985)를 제외하고는 한 쌍의 부부에서 남편과 부인의 유형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

2.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과 관련변인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유형은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원효종, 1984;송성자, 1985;이창숙·유영주, 1988;Hawkins et al, 1980).

사회학습이론가들에 의하면 성차는 어려서부터의 이질적인 경험, 즉 보상과 벌을 통하여 성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행위는 강화되고 부적절한 행위는 무시되기 때문에 생긴다(Derlega, 1976). 그러므로 남편은 자신의 내적경험 전체를 나타내지 않는 반면에, 부인은 자신의 정서나 감정을 나타내도록 북돋아지기까지 한다.

한편 보상이론에 의하면 남편과 부인이 손실보다 보상이 크지 않으면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 (Burr et al, 1977). 그러므로 대부분 직업을 가진 남편들은 직장동료들과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므로 커다란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한 부부간 커뮤니케이션에 부인보다 덜 관심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부간에 커뮤니케이션 자체를 기피하는 원인은 배우자의 의사에 반대를 제기하는 방식, 즉 유형에 있는 것으로(Chilman, 1975), 지지적이고 긍정적인 메세지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은 부부의 성에 따라 행위, 선호, 지각 면에서 고찰해 볼 수 있다.

행위면에서는 남편과 부인 모두 폐쇄적이기 보다는 개방적인 친숙형 혹은 분석형이었으나(원효종, 1984;이기숙, 1988;Hawkins et al, 1980), 남편은 부인보다 차단형, 그리고 부인은 남편보다 친숙형인 경향이 있었다(Hawkins et al, 1980). 그러나 이창숙·유영주(1988)의 연구결과에서는 희생형은 부인에서만, 그리고 친숙형은 남편에서만 나타나고 부인에 비하여 분석형이 많아서 일치되지 않은 경향을 보였다. 한국의 문제가족에서는 남편은 권위지향형과 지배지향형이 그리고 부인은 소심지향형과 희생지향형이 특징이었고, 권위지향형은 남편에서만 그리고 소심지향형은 부인에서만 나타났다(송성자, 1985).

선호면에서는 배우자에 대하여 부인은 남편이 좀 더 친숙형으로, 남편은 부인이 좀 더 차단형으로 커뮤니케이션하기를 원하였다(Hawkins et al, 1980).

그리고 지각면에서는 본인이 지각하는 경우에 비하여 배우자에 의하여 지각되어지는 경우 좀 더 폐쇄적이고 노출이 적은 유형으로 지각하게 된다(원효종, 1984;Hawkins et al, 1980).

한편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은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연령(이창숙·유영주, 1988;Yelsma, 1986), 교육수준(원효종, 1984;송성자, 1985;Michel, 1970;Komarovsky, 1987), 직업(원효종, 1984;송성자, 1985;Chilman, 1975;Nye, in Burr et al, 1979;Komarovsky, 1987), 소득수준과 가족형태(이창숙·유영주, 1988), 그리고 가족생활주기(이기숙, 1988;이창숙·유영주, 1988)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

위와 같은 이론과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조사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에는 행위자, 행위, 배경이나 경위가 포함되므로 보편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서로 다른 커뮤니케이션 문화권의 유형을 한국부부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같은 문화권일지라도 성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커뮤니케이션 행위는 강화되고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행위는 무시되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고려하면서 한국문화 속에서 일반부부에게 나타나는 유형을 포함하면서 남편과 부인에게 나타나는 유형의 특징 및 차이점이 연구되어져야 하고 더 나아가 남편과 부인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의 관계도 설명되어야 할 것이므로,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척도구성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커뮤니케이션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이라는 관점을 주축으로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작성하고 연구문제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부부간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어떻게 유형화되는가?

1-1. 부부간에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은 어떤 요인들로 구성되는가?

1-2. 커뮤니케이션 요인들은 어떻게 유형화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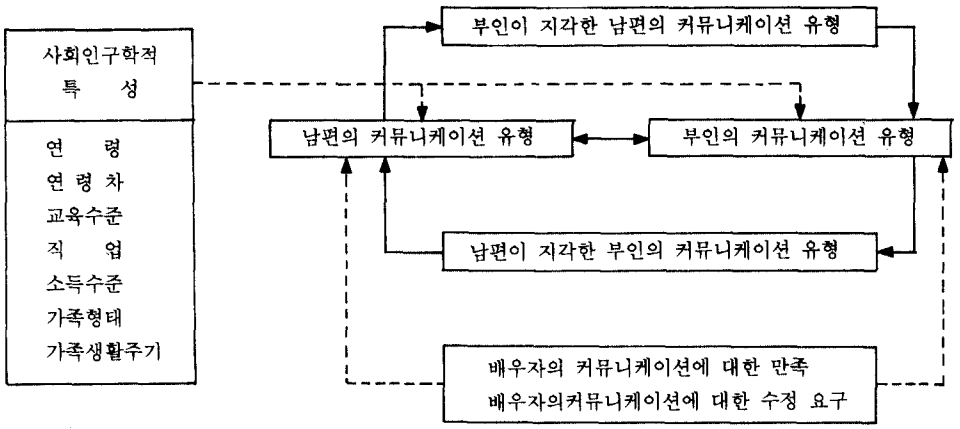
1-3. 자신이 지각하는 커뮤니케이션 유형과 배우자에 의하여 지각되어지는 커뮤니케이션 유형은 일치하는가?

연구문제 2. 한쌍의 부부에서 남편과 부인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의 관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2-1.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은 한쌍의 부부에서 어떤 관계로 나타나는가?

2-2.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의 관계는 배우자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만족 및 수정요구와 상관이 있는가?

2-3.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의 관계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연령, 연령차, 교육수준, 직업, 소득수준, 가족형태, 가족 생활주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그림 1〉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관한 가설적 연구모형

주1) 실선은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의 관계는 자신과 배우자에 의하여 지각 되어지는 커뮤니케이션 유형 및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영향을 받아 상호작용하면서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점선은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의 관계가 배우자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만족 및 수정요구, 그리고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상관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2. 척도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척도문항을 작성하는데 실제로 부부간 상호작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커뮤니케이션 태도를 면접과 관찰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면접을 위한 질문은 Adler와 Towne(1975)의 이론을 바탕으로 다섯 가지 즉 부부간에 일어나는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 행동, 배우자에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접근방식, 의사결정, 배우자의 반응에 대한 고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노력 등이었다. 관찰은 부부간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지식을 갖춘 대학생이 자신의 부모를 관찰하였다. 이러한 사전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가척도를 작성한 후 2차에 걸친 예비조사를 질문지 방법으로 실시하여, 성에 따라 유형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으므로(Thomson & Meltzer, 1964;Mchrabian & Wiener, 1967;Hawkins et al, 1980) 남편과 부인 각각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산출하고 문항분석과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남편은 52문항, 그리고 부인은 44문항이 결정되었다. 각 문항의 반응은 각 문항이 같은 정도로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 측정에 기여한다는 가정아래 Likert 형 5점 척도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내적일치도인 Cronbach's a를 산출하여 남편은 .846이고 부인은 .797이었다.

3. 연구대상 및 절차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혼남녀 즉 부부가 연구대상이었다. 사전조사에서 면접실시는 기혼 남성 47명과 여성 55명 그리고 관찰은 부부 100쌍이, 2차례에 걸친 예비조사는 부부 50쌍이 대상이 되었다. 본조사는 1990년 11월에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고려한 의도적 표본추출에 의하였다. 배부된 질문지는 남편용 500부와 부인용 500부 등 총 500쌍(1000부)으로 미회수, 부실기재된 것을 제외한 602부(301쌍)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표본조사를 위한 조사원은 가정관리학과의 대학생, 대학원생들로 이들에게 연구목적과 내용, 조사방법을 교육시킨 후 연구대상을 직접 방문하여 응답요령의 설명과 함께 질문지를 배부한 후 일주일에서 10일후 회수하거나 우편으로 반송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질문지를 배부할 때 연구대상자의 비밀을 보장하고 부부간의 의견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응답 후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N=301)

구 분		N(%)	구 분		N(%)
남편연령	20~29세	23 (7.7)	연령차	0~3세	148 (48.2)
	30~29세	84 (27.9)		4~7세	126 (42.8)
	40~49세	130 (43.2)		8세 이상	27 (9.0)
	50세이상	63 (20.9)	소득수준	60만원 이상	27 (9.0)
	무 응 답	1 (0.3)		60~80만원 미만	31 (10.3)
부인연령	20~29세	45 (15.0)		80~100만원미만	67 (22.3)
	30~39세	103 (34.2)		100~150만원미만	72 (23.9)
	40~49세	121 (40.2)		150~200만원미만	51 (17.0)
	50세이상	32 (10.6)		200만원 이상	50 (16.6)
	무 응 답	— —		무 응 답	3 (1.0)
남편교육수준	중졸이상	28 (9.3)	가족형태	핵 가 족	221 (73.4)
	고 졸	58 (19.3)		확대가족	79 (26.3)
	대 졸	158 (52.5)		무 응 답	1 (0.3)
	대학원이상	56 (18.6)	가족생활주기*	형 성 기	37 (12.3)
	무 응 답	1 (0.3)		자녀출산 및 양육기	46 (15.3)
부인교육수준	중졸이상	60 (19.9)		자녀교육기	143 (47.5)
	고 졸	86 (28.6)		자녀성인기	51 (16.9)
	대 졸	128 (42.5)		자녀결혼 및 노년기	24 (8.0)
	대학원이상	27 (9.0)			
	무 응 답	— —			
남편직업	단순노무직	6 (2.0)			
	숙련노동	30 (10.0)			
	자영상공	66 (21.9)			
	사 무 직	67 (22.3)			
	전문직 · 관리직	115 (38.2)			
	대기업주 · 고위관리	6 (2.0)			
	은 퇴	4 (1.3)			
	무 응 답	7 (2.3)			
부인직업	단순노무직	9 (3.0)			
	숙련노동	19 (6.3)			
	자영상공	13 (4.3)			
	사 무 직	17 (5.6)			
	전문직 · 관리직	49 (16.3)			
	대기업주 · 고위관리	1 (0.3)			
	주 부	193 (64.1)			

*가족생활주기는 유영주(1980)의 6단계 분류에서 자녀결혼기와 노년기를 묶어 5단계로 하였다.

봉투에 봉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은 〈표 1〉과 같다.

4. 자료분석

표집된 자료는 SA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요인분석, 집락분석, 차이검증, 상관분석 등의 통계적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V. 연구결과

1.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는

〈연구문제 1-1〉, 즉 유형이 어떤 요인들로 구성되는가가 먼저 설명되어져야 한다. 요인분석시 고유치가 1.0이상인 요인의 수가 스물 한개로 요인지정 및 설명에 무리가 있어서 요인을 세 개에서 열 개로 지정하여 유형파악에 가장 적절하게 분류되었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하여서 다섯 개의 요인[2]이 추출되었다. 남편은 「비난하는 태도」, 「이성적인 태도」, 「일방적인 태도」, 「무관심한 태도」, 「양보하는 태도」순으로 그리고 부인은 「이성적인 태도」, 「양보하는 태도」, 「비난하는 태도」, 「무관심한 태도」, 「일방적인 태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1-2〉, 즉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밝히고자 요인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표준화된 요인점수를 기준으로 집락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개별사례를 단위로 하여 FASTCLUS를 사용하였다. 집락수는 세 개에서 일곱 개로 미리 지정해주고 최대반복적 절차는 10으로, 수렴기준치는 .02로 지정한 다음, 각각의 분석결과를 검토하여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집락의 수를 선택하였다. 즉 남편은 다섯 개, 그리고 부인은 네 개 집단으로 유형화하였다.

먼저 남편의 경우(표 2), 집단 1에 속하는 남편(31.5%)은 부부간 커뮤니케이션에 무관심하며 부인에게 양보하지 않고 일방적이며 비난하는 태도를 갖고 있어서, 객관성이 없고 자신의 견해만을 주장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합리화시키는 유형이므로 「독선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집단 2에 속하는 남편(29.9%)은 이성적이지 못하면서 양보하는 태도를 지녀 부인과 대등하지 못한 입장에서 무조건 부인의 의견에 따르려고 하는 유형이므로 「순종형」이라 명명하였다.

집단 3에 속하는 남편(14.0%)은 비난도 양보도 하지 않으면서 또한 무관심하지도 않은 태도를 갖고 있다. 이러한 유형은 전통적 한국가장의 권위형에서 민주화과정에 있는 가장들이 현대식 교육과 여성의 지위향상에 따라 달라진 환경에 의하여 변화된 과도기적 권위형으로 「권위지향형」이라 명명하였다.

집단 4에 속하는 남편(12.5%)은 일방적이지도 양보하지도 이성적이지도 않은 무관심한 태도를 갖고 있어서, 부부간 커뮤니케이션에 아예 관심이 없어서 신경을 쓰지 않는 유형이므로 「무관심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집단 5에 속하는 남편(12.1%)은 매우 이성적이어서 부인을 비난하지 않고 양보하는 태도를 갖고 있으므로 「상호존중형」이라고 명명하였다.

한편 부인의 경우(표 3), 집단 1에 속하는 부인(30.9%)은 일방적이면서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는 유형으로, 남편의 유형 중 독선형과 비슷하여 「독선형」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러나 남편은 부인에 비하여 무관심하다는 것이 더하여진다.

집단 2에 속하는 부인(24.2%)은 이성적이지 않고 비난하지도 않는다. 즉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남편을 탓하지도 않아 남편의 유형 중 무관심형

〈표 2〉 남편의 커뮤니케이션 유형별 요인 점수

유 형	N	%	요 인				
			비난하는 태 도	이성적인 태 도	일방적인 태 도	무관심한 태 도	양보하는 태 도
1. 독 선 형	81	31.5	.599	.219	.510	.446	-.444
2. 순 종 형	77	29.9	-.079	-.484	-.206	-.141	.757
3. 권위지향형	36	14.0	-.511	-.072	.237	-1.435	-.574
4. 무관심형	32	12.5	.105	-.717	-1.127	.538	-.519
5. 상호존중형	31	12.1	-.853	1.453	.065	.296	.482
계	257	100.0					

주 2) 지면 관계상 설명은 생략하였으며, 이정순(1991)의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 33-45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과 비슷하여 「무관심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집단 3에 속하는 부인(23.4%)은 이성적이면서 일방적이 아니고 부부간 커뮤니케이션에 관심이 있는 유형으로, 남편의 유형 중 상호존중형과 비슷하므로 「상호존중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집단 4에 속하는 부인(21.5%)은 이성적이지 않으면서 양보하는 태도를 지녀 남편의 유형 중 순종형과 비슷하므로 「순종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연구문제 1-3〉, 즉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대한 남편과 부인의 지각에 있어서의 일치여부는 남편의 유형 중 독선형($t=-2.26$, $p<.05$)과 부인의 유형 중 무관심형($t=-3.01$, $p<.01$)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요인별로 검증한 결과 부인은 남편이 지각하는 것보다 독선형인 남편이 더 무관심하고($t=-2.24$, $p<.02$), 비난하며($t=-2.59$, $p<.05$), 일방적이라고($t=-3.47$, $p<.001$) 지각하며, 남편은 부인이 지각하는 것보다 무관심형인 부인이 덜 이성적이면서($t=-3.55$, $p<.001$) 덜 양보하는 것으로($t=-3.26$, $p<.01$) 지각한다.

2.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의 관계

〈연구문제 2-1〉, 즉 남편과 부인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이 한쌍의 부부에서 어떤 관계로 나타나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유형들의 구성을 알아야 하므로 상관분석을 하였다(표 4).

이와 같은 분석은 통계적으로 남편과 부인의 유형 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분포가 누계분포(marginal distribution)에 의하여서만 결정된다는 가정하에 기대되는 기대값을 바탕으로 관측값의 비를 측정한 것이다. 이에 보다 뚜렷하게 나타난 부부간 유형을 남편 대 부인의 입장에서 보면 상호존중형 대 상호

〈표 3〉 부인의 커뮤니케이션 유형별 요인점수

유 형	N	%	요 인				
			이성적인 태 도	양보하는 태 도	비난하는 태 도	무관심한 태 도	일방적인 태 도
1. 독 선 형	82	30.9	.354	-.633	.578	.033	.488
2. 무관심형	64	24.2	-.431	-.225	-1.069	.240	.054
3. 상호존중형	62	23.4	.704	.163	.005	-.495	-.896
4. 순 종 형	57	21.5	-.792	.986	.363	.222	.211
계	265						

〈표 4〉 남편의 커뮤니케이션 유형과 부인의 커뮤니케이션 유형간의 통계적 독립성을 가정한 기대값에 대한 관측값의 비

(괄호안의 수치는 빈도)

남편유형	부 인 유 형				계
	독 선 형	순 종 형	무관심형	상호존중형	
독 선 형	1.00 (23)	1.41 (23)	0.86 (16)	0.74 (12)	74
순 종 형	1.43 (31)	0.84 (13)	0.91 (16)	0.65 (10)	70
무관심형	0.86 (8)	1.06 (7)	1.20 (9)	0.91 (6)	30
상호존중형	0.60 (5)	0.34 (2)	1.18 (8)	2.40 (12)	27
권위지향형	0.52 (5)	6.8 (6)	7.8 (9)	1.62 (11)	31
계	74	51	58	51	232

$\chi^2=26.64$, $df=12$, $P<.01$

존중형(2.40), 권위지향형 대 상호존중형(1.62), 순종형 대 독선형(1.43), 순종형 대 순종형(1.41) 등을 들 수 있다.

표 4의 결과로 남편과 부인의 유형은 다음과 같은 관계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표 5). 먼저 부부간 유형을 대칭과 비대칭의 관계로 나눌 수 있다. 대칭을 이루는 관계는 배우자가 역기능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할 경우 상대방이 이해를 하고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기 보다는 배우자에게 대치되는 유형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대립관계가 있으며, 또 하나는 남편과 부인 모두 서로 자신보다 배우자의 의견이나 입장을 고려하여 양보하거나, 혹은 남편과 부인 모두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면서 배우자 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엄격하면서 존중하는 유형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대등한 관계가 있다. 그리고 비대칭의 관계는 가정평형형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의견이나 입장을 따르거나, 혹은 배우자가 역기능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면 부부간에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하여 의사표현을 명백히 하면서 존중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노력하는 보완관계로 나타난다. 보완관계는 남편이 보완하는 경우와 부인이 보완하는 경우로 나뉘어진다.

이와 같은 세 가지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의 관계는 보완관계(N=137), 대립관계(N=70), 대등한 관계(N=25) 순으로 나타났다. 보완관계 중 남편보완(70)과 부인보완(67)이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표 5〉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의 관계

(N=232)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의 관계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	빈 도	
대 립 관 계		독 선 형: 독 선 형	23	70
		독 선 형: 무관심형	24	
		독 선 형: 권위지향형	5	
		무관심형: 무관심형	9	
		무관심형: 권위지향형	9	
보완관계	남편보완*	독 선 형: 순 종 형	31	70
		독 선 형: 상호존중형	5	
		무관심형: 순 종 형	16	
		무관심형: 산호존중형	8	
		상호존중형: 순 종 형	10	
	부인보완*	독 선 형: 순 종 형	23	67
		독 선 형: 상호존중형	12	
		무관심형: 순 종 형	7	
		무관심형: 상호존중형	6	
		권위지향형: 순 종 형	6	
		권위지향형: 상호존중형	11	
		상호존중형: 순 종 형	2	
대등한 관계		상호존중형: 상호존중형	12	25
		순 종 형: 순 종 형	13	

*부부중 누가 배우자의 의견에 따르거나 혹은 자신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지에 따라 남편보완과 부인보완으로 나눠진다.

3.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의 관계와 배우자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만족 및 수정요구

〈연구문제 2-2〉, 즉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의 관계와 배우자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만족 및 수정요구여부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배우자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만족은 부인(평균 2.57)이 남편(평균 2.23)에 비하여 배우자의 커뮤니케이션에 만족하였다($t=-3.34$, $p<.001$). 그리고 부부가 어떠한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의 관계에 있을 경우 배우자의 커뮤니케이션에 만족하고 있는지는 상관분석한 결과 남편에서만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chi^2=15.64$, $df=6$, $p<.05$) (표 6). 남편은 보완관계일 경우 남편과 부인 중에서 누가 보완하느냐에 별로 상관없이 대립관계에 비하여 더 만족한다. 그리고 부부가 대등한 관계일 경우에 만족한다.

한편 배우자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수정요구는 남편(평균 3.07)이 부인(평균 2.89)에 비하여 큰 것으로 나타났다($t=2.26$, $p<.05$). 그리고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의 관계와 배우자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수정요구의 상관분석 결과, 남편($\chi^2=20.54$, $df=6$, $p<.01$)과 부인($\chi^2=13.91$, $df=6$, $p<.05$) 모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표 7). 남편의 경우 세 가지 관계 모두 「그저 그렇다」에서 가장 많았으며, 대립관계일 경우 보완관계에 비하여 부인의 커뮤니케이션을 더 수정하기를 원한다. 보완관계 중 남편보

〈표 6〉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의 관계와 남편의 부인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만족

단위: %

만족 정도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의 관계			
	대립관계	보완 관계		대등한 관계
		남편보완	부인보완	
만족한다	51.4(36)	78.5(51)	70.8(46)	80.0(20)
그저 그렇다	32.9(23)	12.3(8)	23.1(15)	16.0(4)
만족하지 못한다	15.7(11)	9.2(6)	6.2(4)	4.0(1)
계	100.0(70)	100.0(65)	100.0(65)	100.0(25)

$\chi^2=15.64$, $df=6$, $P<.05$

〈표 7〉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의 관계와 부부의 배우자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수정요구

단위: %

수정요구정도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의 관계			
		대립관계	보완 관계		대등한 관계
			남편보완	부인보완	
남편	수정하기를 원한다	40.6 (28)	23.4 (15)	17.2 (11)	8.3 (2)
	그저 그렇다	46.4 (32)	48.5 (31)	50.0 (32)	75.0 (18)
	수정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13.0 (9)	28.1 (18)	32.8 (21)	16.7 (4)
	계(N)	100.0 (69)	100.0 (64)	100.0 (64)	100.0 (24)
	$\chi^2=20.54$ $df=6$, $p<.01$				
부인	수정하기를 원한다	39.1 (27)	19.7 (13)	27.3 (18)	32.0 (8)
	그저 그렇다	43.4 (30)	54.5 (36)	42.4 (28)	64.0 (16)
	수정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17.4 (12)	25.8 (17)	30.3 (20)	4.0 (1)
	계(N)	100.0 (69)	100.0 (66)	100.0 (66)	100.0 (25)
	$\chi^2=13.91$, $df=6$, $p<.05$				

완과 부인보완에서 뚜렷한 차이는 없었으나, 남편 자신이 보완하는 경우에 부인에게 수정을 원하는 정도가 높았다. 그리고 부인 또한 세 가지 관계 모두 「그저 그렇다」에서 가장 많았으며, 보완관계일 경우 대립관계에 비하여 남편의 커뮤니케이션을 수정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의 관계와 사회인구학적 변인

〈연구문제 2-3〉, 즉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의 관계는 차이가 있는가를 상관분석한 결과 직업, 연령차, 소득수준, 가족형태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다. 연령에 따라 부인에서만(χ^2=18.16, df=9, p<.05), 교육수준에 따라 남편에서만(χ^2=11.20, df=3, p<.05), 그리고 가족생활주기에 따라(χ^2=15.4, df=6, p<.05)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먼저 연령에 따라(표 8) 부인의 경우 20대에서 40대까지는 보완관계, 그 중에서 20대에서는 남편보완이 40대에서는 부인보완이 약간 더 많았다. 50세 이상에서는 대립관계가 보완관계나 대등한 관계에 비하여 많았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표 9) 남편의 경우 대졸이상에서 고졸이하에 비하여 대립관계보다는 보완관계로 그리고 대등한 관계로 커뮤니케이션하였다. 보완관계에서는 남편보완과 부인보완이 같게 나타났다.

가족생활주기에 따라서는(표 10) 형성기 및 자녀양육기와 자녀교육기에는 보완관계, 대립관계, 대등한 관계 순이었다. 그리고 자녀성년기 및 노년기에는 대립관계와 보완관계가 비슷하게 많았으며 대등한 관계는 적었다. 보완관계는 큰 차이는 없었고 남편보완에서 부인보완으로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Ⅵ.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부가 상호작용한다는 관점하에서, 한 쌍의 부부에서 남편과 부인의 커뮤니케이션 유형 및 이러한 유형이 어떠한 관계로 나타나는가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표 8〉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의 관계와 부인의 연령

단위: %

연 령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의 관계				계 (N)
	대립관계	보 완 관 계		대등한 관계	
		남편보완	부인보완		
20대	14.6 (6)	26.8 (19)	46.4 (11)	12.2 (5)	100.0 (41)
30대	29.5 (23)	29.5 (25)	32.1 (23)	9.7 (7)	100.0 (78)
40대	32.5 (27)	31.3 (19)	22.9 (26)	13.3 (11)	100.0 (83)
50세이상	56.0 (14)	24.0 (3)	12.0 (6)	8.0 (2)	100.0 (25)

χ^2=18.16, df=9, p<.05

〈표 9〉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의 관계와 남편의 교육수준

단위:%

교육수준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의 관계				계 (N)
	대립관계	보 완 관 계		대등한 관계	
		남편보완	부인보완		
고졸이하	48.2 (27)	23.2 (13)	23.2 (13)	5.4 (3)	100.0 (56)
대졸이상	25.1 (43)	31.0 (53)	31.0 (53)	12.8 (22)	100.0 (171)

χ^2=11.20, df=3, p<.05

〈표 10〉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의 관계와 가족생활주기

단위: %

가족생활 주기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의 관계				계 (N)
	대립관계	보 완 관 계		대등한 관계	
		남편보완	부인보완		
형성기 및 자녀양육기	18.1 (13)	38.9 (28)	34.7 (25)	8.3 (6)	100.0 (72)
자녀 교육기 및 노년기	32.0 (33)	27.2 (28)	26.2 (27)	14.6 (15)	100.0 (103)
자녀성년기	46.2 (24)	19.2 (10)	26.9 (14)	7.7 (4)	100.0 (52)

χ^2=15.4, df=6, p<.05

〈표 11〉 연구년도별로 본 국내외 부부간 커뮤니케이션유형과 본 연구의 분석결과

연구자	년 도	분 류 기 준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의 관계
Satir	1972	언어, 몸의 자세, 내면적 감정	회유형, 비난형, 계산형, 산만형, 설득형	—
Hawkins 등	1977, 1980	언어화, 감정표출 정도	차단형, 통제형, 분석형, 친숙형	—
Edwards	1980	지각의 유사성, 이해	조화상태, 부조화상태, 갈등상태, 비갈등상태	—
원효종	1984	Hawkins 등의 분류	차단형, 통제형, 분석형, 친숙형	—
송성자	1985	사회심리학적 요인	권위지향형, 불성실지향형, 지배지향형, 회생지향형, 소심지향형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의 관계를 규정하지 않았지만,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이 남편과 부인사이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부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창숙 유영주	1988	Satir, Hawkins 등, 송성자 등의 이론과 분류	권위형, 친숙형, 회생형, 분석형, 타인지향형, 성실형	—
본 연구	1991	요인(비난, 이성, 양보, 무관심, 일방적인 태도)	독선형, 순종형, 무관심형, 권위지향형, 상호존중형	대립관계, 보완관계, 대등한관계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에서의 요인은 다섯 개로 추출하였다. 남편은 비난하는 태도, 이성적인 태도, 일방적인 태도, 무관심한 태도, 양보하는 태도 순으로, 그리고 부인은 이성적인 태도, 양보하는 태도, 비난하는 태도, 무관심한 태도, 일방적인 태도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부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은 남편은 다섯 개 유형 중 독선형, 순종형, 권위지향형, 무관심형, 상호존중형 순으로, 그리고 부인은 네 개 유형 중 독선형, 무관심형, 상호존중형, 순종형 순으로 분포되었다. 즉 권위지향형은 남편에게만 나타난 유형이다.

먼저 독선형은 송성자(1985)의 권위지향형과 지배

지향형의 복합형태라고 할 수 있고, 순종형은 Satir (1972)의 회유형, Wish와 D'Andrade(1980)의 동조형과 순종형을 결합시켜 놓은 유형 및 송성자(1985)의 희생지향형과 비슷하다. 상호존중형은 개방적인 면에서 Hawkins 등(1980)의 친숙형과 유사하나, 친숙형이 감정표출을 더욱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Satir (1972)의 설득형과는 자신의 커뮤니케이션 결과에 대하여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며, 솔직하고 사람이 아니라 행위를 평가하는 면에서 상당한 접근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권위지향형은 송성자(1985)와 이창숙·유영주(1988)의 권위지향형이나 권위형과 명칭은 비슷하나 그 성격은 다르다. 60년대부터 우리사회가 고도의 성장을 이루는 동안에 남편은 직장과 일에 몰두하게 되어 부인에게 대부분의 가정일을 맡기게 되고 동시에 부인의 지위는 향상되었다. 반면에 남편은 전통사회에서 누려왔던 비합리적인 권위에서는 벗어났지만 잔재는 남아있어 과도기적 권위지향형으로 커뮤니케이션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유형은 역기능적 유형을 조사한 송성자(1985)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나지 않은 상호존중형이 있었으나 그 분포는 적어서 Hawkins 등(1980)이나 Hawkins 등의 분류를 기준으로 한 원효종(1984)의 친숙형이 많다는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는 것으로 상호존중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정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부자관계에 종속되던 부부관계가 가족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는 가족구조로 전환되었으나, 실제로는 확대가족의 의식구조가 많이 잔재하여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송성자, 1985;조형, 1980). 따라서 서구와 달리 커뮤니케이션 기능은 가족화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부간 커뮤니케이션에서 개인의 반응과 행위의 규칙은 가족과 친척의 의견을 반영하고 논쟁을 피하기 위하여 간접적으로 의견을 표시하며 침묵에 가치를 두어서(오세철, 1988) 계층서열에 적합한 커뮤니케이션을 추구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신의 의사를 명백히 표현하고 받아들이는 상호존중형보다는 독선형, 순종형, 무관심형, 권위지향형 등의 유형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남편과 부인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대한 부부의 지각일치여부는 남편의 유형 중 독선형과 부인의 유형 중 무관심형에서만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기대에 기인한 것으로 부인은 남편이 좀 더 친숙형으로, 남편은 부인이 좀 더 분석형이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의 관계는 세 가지로 보완관계, 대립관계, 대등한 관계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완관계에서 남편보완과 부인보완이 비슷한 분포를 나타냈다.

대립관계와 보완관계는 송성자(1985)의 연구결과에서 관계를 규정짓지는 않았지만 부분적인 부부간 유형의 구성에서 나타난 것과 유사하다.

이러한 관계는 주도권 다툼에 의한 것으로, 부부는 가정내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권력행사를 하게 되며, 권력도 관계의 속성이므로(wolfe, in Galvin, 1982) 이상적인 가정에서조차 주도권 다툼이 주기적으로 일어난다.

전통사회에서 三從之義는 부녀자가 지켜야 하는 기본윤리와 도덕이었으므로 주종관계 입장에서 남편과 커뮤니케이션하게 되어 부인보완이 남편보완 보다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가족에서 부인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함께 확고한 신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남편에 종속되는 커뮤니케이션에 큰 의의를 부여하지 않고, 남편도 비합리적인 권위에서 벗어나서 보완하는 입장이 남편과 부인이 비슷하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관계는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기도 하며 변화되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대립관계나 보완관계가 심화되면 커뮤니케이션의 역기능적인 면이 더욱 가중되어질 것이다.

다섯째,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의 관계와 배우자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만족여부는 남편에서만, 그리고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의 관계와 배우자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수정요구여부는 남편과 부인 모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만족여부에서 남편은 대등한 관계, 그리고 남편과 부인 중에서 누가 보완하는가에 상관없이 보완관계일 경우, 대립관계에 비하여 만족하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보완관계에서 만족한다는 점이다. 서

양에서 부부는 동등한 인격체로서 상호작용하는 부부가 이상형이며 가족의 행복은 가족구성원 각각의 행복, 즉 결혼생활의 질에 달려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생활의 질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부부가 다수이어서(이동원, 1988), 보완관계가 많으면서 또한 만족하므로, 우리나라 부부의 특징은 상호보완하는 부부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정요구여부에서는 남편과 부인 모두 보완관계일 경우 대립관계에 비하여 수정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이는 위에서 설명된 만족여부와도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부부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교류할 의사가 결여되어 무관심하거나 좀 더 친숙하게 커뮤니케이션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만약 부부가 배우자의 수정요구를 고려하지 않아서 계속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면 결혼생활에 불만을 야기시키는 잠재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의 관계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직업, 연령차, 소득수준, 가족형태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부인은 연령에 따라, 남편은 교육수준에 따라, 그리고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먼저 연령과 가족생활주기를 함께 분석하면 비슷한 경향을 보여서 40대까지와 자녀교육기까지는 대립관계에 비하여 보완관계로, 50세이상과 자녀성년기이후에는 대립관계가 보완관계에 비하여 그전 보다 많아졌다. 보완관계 중 남편보완이 많다가 부인보완이 많아진 것은 젊은 20대와 형성기 및 자녀양육기에 가족의식구조에 남존여비사상이 거의 없고 남녀의 역할변화에 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세대를 더하고 자녀성년기 및 노년기에 이르면 남편이 가장의 위치를 확보함으로써 부인보완이 많아졌을 것이다. 동시에 한국가족구조에서 부인은 중년기를 넘어 노년기에 이르게 되면 권위가 강화되므로(이광규, 1981) 가장의 위치를 확보한 남편과 권력다툼으로 대립관계가 보완관계에 비하여 그런 보다 늘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진다.

교육수준별로 남편은 대졸이상에서 고졸이하에 비하여 보완관계가 대립관계 보다, 그리고 대등한 관계도 많았다. 남편보완과 부인보완은 같게 나타났다. 따라서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부는 보완적으로 그리고 개방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한국가족에서의 부부가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인 유형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이유는 전통가족인 확대가족의식의 잔재와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있어서의 한국문화와 서양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의 관계 중 보완관계가 많고, 대등한 관계에서와 같이 보완관계일 경우 배우자의 커뮤니케이션에 만족하는 것은 한국부부의 특징이 남편과 부인 중 누가 보완하는가에 상관없이 상호보완적으로, 그리고 가정생활의 질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하며 가정평형상태를 이루려고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어진다.

본 연구는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의 척도구성에 있어서 이론에 따라 척도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실제 부부간에 발생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면접, 관찰, 질문지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하였다. 그리고 부부를 함께 쌍으로 남편과 부인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상호작용하는 측면에서 다루었으며, 더 나아가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의 관계와 배우자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만족 및 수정요구여부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서구의 핵가족과는 다른 확대가족의식이 많이 잠재되어 있는 한국가족에서의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의 관계를 파악하였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끝으로 후속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서 연구될 수 있도록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척도의 구성에 있어서 연구대상자의 자기기록(self-report)이나 vidio taping 등을 병행하여 사용하면 언어로 표출한 것 이외에 비언어적인 면과 시간, 장소 즉 분위기와 주거환경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 부부들은 서구 사람들에 비하여 문화의 차이에 의하여 상대적으로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발달하지 못하고 폐쇄성을 갖고 있다. 또한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하는 유형의 관계와 문제점을 파악한다 할지라도 개선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므로 커

뮤니케이션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부부간에 상호작용하는 체계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M.E.(Marriage Encounter)운동과 같은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부부가 원활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하여는 부부가 되기 이전부터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교, 더 나아가 그 이전의 교육기관에서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과목이 교육과정에 포함된다면 가족에서의 부부관계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발생되는 갈등 및 문제점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송성자, 한국부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가족문제에 관한 연구, 의사소통 가족치료 이론을 중심으로, 숭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5.
2) 오세철, 한국인의 사회심리, 서울:박영사, 1988.
3) 원효종, 부부간의 의사소통양식과 의사소통불안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4.
4) 유영주, 한국도시가족의 가족생활주기 모형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 1984, 111-129.
5) 이광규, 한국가족의 구조분석, 서울:일지사, 1981.
6) 이기숙, 가족주기에 따른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6(1), 1988, 167-187.
7) 이동원, 도시부부의 결혼의 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8) 이창숙 · 유영주, 한국남편과 부인의 커뮤니케이션 유형분류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6(1), 1988, 1-25.
9) 조형, 남성지배문화—오늘의 위치, 지배문화 남성문화, 조형 등, 서울:청하, 1990.
10) Adams, B. N., *The Family*, Chicago: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 1980.
11) Adler, R. & N. Towne, *Looking Out/Looking in: Interpersonal Communication*, New York:Holt, Rinehat and Winston, 1975.
12) Bugental, D.E., J.M. Kaswas & L.R., Love, Perception of Contradictory Meamings Conveyed by Verbal and Nonverbal Channe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6(4), 1970, 647-655.
13) Burr, W.R., R.Hill, F.I. Nye, & I.L. Reis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Ⅱ, New York:The Free Press, 1979.
14) Carter, R.F., W.L. Ruggels, K.M. Jackson & M. B. Heffner, Application of Signaled Stopping Technigue to Communication Research, *New Model's for Mass Communication Research*, ed. P. Clarke, Beverly Hills, 1973, 13-44.
15) Chilman, C.S., Families in Poverty in the early 1970's:Rates, Associated Factors, Some Implic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7(1), 1975, 57-58.
16) Derlega, V.J. & A.L. Chaikin, Norms Affecting Self-Disclosure in Men and Wom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4(3), 1976, 376-380.
17) Edwards, K.H., *Understanding, Communication and Cognitive Homeostasis*, Doctor of Philosophy, University of Washington, 1980.
18) Galvin, K.M. & B.J. Brommel, *Family Communication/Cohesion and Change*, Illinois:Scott, Foreman and Company, 1982.
19) Hawkins, J.L., C. Weisberg & D.W. Ray, Marital Communication Style and Social Cla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9(3), 1977, 479-490.
20) ———————————, Spouse Defferences in Communication Style, Preference, Perception,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3), 1980, 585-593.
21) Komarovsky, M., *Blue-Collar Marriage*, New York: Yale University, 1987.
22) Larsen, J.A., Remeding Disfunctional Marital Communication, *Social Casework*, 63(1), 1982, 16.
23) Mehrabian, A. & M. Wiener, Decoding of

Inconsistent Commun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1967, 109-114.

24) Michel, A., Wife's Satisfaction with Husband's Understanding in Parisian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2(3), 1970, 351-359.

25) Satir, V., *Peoplemaking,* Palo Alto, Calif: Science and Behavior Books, Inc. 1972.

26) Thomson, D.F. & L. Meltzer, Communication of Emotional Intent by Facial Expression,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8(1), 1960, 129-135.

27) Vincent, J.P., L.C. Friedman, J. Nugent & L. Mes erly, Demand Characteristics in Ob of Marital Interac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 1979, 557-566.

28) Wish, M.D., Dimensions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rrespondences Between Structures for Speech Acts & Bipolar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5), 1980, 848-860.

29) Wish, M.D. & S.J. Kaplan, Perceived Dimensions of Interpersonal Rel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3(4), 1976, 409-420.

30) Yelsma, P., Marriage vs. Cohabitation: Couples' Communication Practices & Satisfac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36(4), 1986, 94-107.